광주 휘발유값 1900원 넘어섰다

14주 연속 상승 2년여만에 최고치

전남 LPG 가격 한달새 13% 급등

광주지역에서도 휘발유 값이 ℓ당 1900원대를 돌파한 주유소가 등장했다. 또 광주·전남지역 휘발유와 LPG 평균 판매가격이 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4주째 상승세를 이어가며 상승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M주유소는 보통 휘발유를 ℓ당 1919원에 판매하고 있다. 광주지역에서 보통휘발유 값이 1900원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 2008년 7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휘발유 값이 ℓ당 1880원대로 1900원 돌파를 눈앞에 둔 주유소도 10곳에 달했다.

광주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816.88원으로 지난해 11월 5일(1696.94원)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도 ℓ당 1814.83원을 기록하며 휘발유 가격이 14주째 상승하고 있다.

자동차용 경유 판매가격도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600원대를 돌파한 이후 광주는 ℓ당 1614.02원, 전남은 ℓ당 1609.80원을 기록중이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도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정에서 연료용으로 쓰는 일반 프로판가스의 충전소 가격이 광주는 ㎏당 1396.60원으로 1400원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전남은 ㎏당 1478.75원으로 한 달 사이 12.9%나 급등했다.

광주지역 자동차용 부탄의 충전소 가격도 ℓ당 1035.03원으로 2008년 12월(1102.29원) 이후 2년1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SK가스, E1 등 LPG 수입·판매사들이 유럽지역 이상한파로 국제 거래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하고 환율 상승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31일 공급가격을 10~15% 올렸다.

하지만 이들 회사는 지난달 인상분이 원가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다음달 공급가격을 또 올린다는 입장이어서 LPG 소매가격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경우 보통 휘발유의 주유소 평균 판매가격이 지난해 10월 10일 이후 100일 연속 상승하면서 ℓ당 1825.26원을 기록했다. 보통 휘발유의 소매가격이 이렇게 오랜 기간 쉬지 않고 오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00일간 보통 휘발유 가격은 ℓ당 1708.86원에서 1825.00원으로 116.14원(6.80%)이나 올랐다. 하루에 전국 휘발유 가격이 1ℓ에 평균 1.16원씩 계속 오른 셈이다.

석유공사는 "겨울 성수기 영향으로 국제 휘발유 가격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 국내 유류가격도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광주신세계, 아이스 와인 선봬

18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지하 1층 와인매장에서 아이스 와인을 선보였다. 아이스 와인은 12~1월 사이 영하 8도의 기온이 하루 이상 지속될 때 서리를 맞아 차갑게 얻 포도송이를 수확해 만든 와인으로 당도가 일반 포도보다 10배 이상 높다. 〈광주신세계 백화점 제공〉

현대車 2월 6일까지 설 특별점검 서비스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6일까지 전국 1500여 곳의 AS네트워크를 활용해 설 특별점검 서비스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설 연휴 전인 이달 말까지 현대차 고객이 직영서비스센터나 서비스협력사에 차량을 입고하면 냉각수와 엔진오일 및 각종 밸브류 등을 무상으로 점검받을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주요 국도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운영하는 18개의 서비스코너를 통해 안전점검과 응급조치를 해준다.

현대차는 이 기간에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연인원 5000여 명을 투입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고객의 안전한 귀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서비스 일정과 장소는 현대차 홈페이지(hyunda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2,096.48 (-3.37)
▼ 코스닥지수	529.02 (-3.99)
▼ 금리 (국고채 3년)	3.66% (-0.05)
▼ 원·달러 환율	1,116.60원 (-1.00)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비료 16.8%·농약 5.7% 가격 인하

농협 "1735억원 영농비 절감"

농협은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요 영농자재인 화학비료와 농약의 가격을 인하한다고 18일 밝혔다.

농협은 "화학비료는 지난해보다 평균 16.8%, 농약은 평균 5.7%를 각각 내렸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화학비료 '인산칼리맞춤1호' 1포대(20kg)가 1만5950원에서 1만2700원으로 20.4%가 인하됐고, 농약 '만냥입제' 1봉지(3kg)는 1만원에서 9400원으로 6.0%가 내렸다.

농협은 "이번 가격인하로 올해 한해 전체 농가에서 1735억원의 영농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동산 전문가, 올 집값 3.1% 상승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국내 부동산전문가 1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주택과 토지의 가격이 각각 3.1%, 2.3%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응답자 중 79명이 부동산 시장이 올해 'U'자형(점진적 상승세)으로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했고 14명이 'L'자형(약세 지속), 7명이 'W'자형(일시회복 뒤 재침체)이 될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라고 답한 전문가는 '입주불량 급감', '전세난에 따른 주택구매 증가'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규제위주의 정부정책(42명), 여유있는 무주택자의 전세 선호(40명)라는 답이 많았다.

또 89명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대책을 연장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의 회복세가 둔화하거나 다시 침체할 것으로 우려했다. /연합뉴스

■ 새얼굴

"창립 60년… 제2도약 기틀 마련"

정 인 채 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연 1회 학술발표회를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대학생 등 미래 토목인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건설업 발전에 일조하겠습니다."

18일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장에 취임한 정인채(64) 새천년종합건설(주) 회장은 "올해 토목학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제2 도약의 기틀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견 건설업체인 새천년종합건설을 경영하고 있는 정 신임 지회장은 전남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부건설 토목이사, 보성건설 부사장을 지냈다. 특히 교수 등 학자가 학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현장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학회 지회장이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소규모 산업단지 개발 확대"

최 종 태 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장

"사업성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개발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일 부임한 한국산업단지공단 호남권본부 최종태(48) 본부장은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의 발전이 곧 국가경제의 발전"이라며 "클러스터 사업의 기업 주도화, 수익성 있는 신규사업 발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신임 본부장은 강원도 강릉 출신으로 강릉고와 경희대 공대를 졸업하고 한국외대대학원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1990년 공단에 입사해 조사협력부장·기획부장·총무부장·전략사업처장·기획조정실장·충청권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건설업체 경영여건 악화

영산강 예산 집중 신규사업 줄어… 작년 건설수주 10% 급감

지난해 전남지역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이 전년보다 10% 감소했고, 올해는 이보다 3%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18일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도내 977개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7조8200억원으로, 전년(8조6815억원)보다 9.9% 감소했다. 이는 2009년 경기부양을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 및 재정 조기 집행의 효과가 사라진데다, 영산강 살리기 사업 등 대형 공사에 예산이 집중돼 신규사업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공사 수주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남도내 발주공사 가운데 도내 업체의 수주는 2014건에 1조4215억원으로 전체 물량의 59.0%에 그쳤다. 지난 2009년(2589건, 1조6420억원) 점유율 72.1%에서 13.1%포인트나 떨어진 수치다. 또 발주 건수도 2009년보다 575건(22.2%), 금액은 2205억원(13.4%)이 줄어들었다.

이처럼 지역 건설업체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건설업체 수도 지난 2008년 952개에서 2009년 997개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977개로 감소했다.

건설협회 전남도회는 올해 지역 건설경기는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의 SOC 예산이 전년보다 약 3.2% 감소하면서 신규 사업 거의 사라졌고, 4대강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공공 수주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해 소폭 상승했던 민간수주도 국내경기 회복세 둔화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도내 업체의 공사 수주액은 전년보다 3%가량 더 줄어 7조5800억원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업체 수도 940여개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협회 전남도회 관계자는 "전남의 경우 공공공사 비중이 55%로 민간 물량보다 의존도가 높은데 지난해 공공부문 발주가 크게 줄어들어 힘겨웠다"면서 "올해도 4대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중소규모 신규 물량이 거의 사라져 지역 건설업계는 더욱 추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